

#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21, 에베소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역사와 문학 과정에서 Dr. Dave Mathewson이 강의한 에베소서 21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에베소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밖에 에베소서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 관한 내용은 월요일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건 세 번째 시험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에베소서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싶고, 수업의 마지막 5분 정도를 다시 여러분에게 시험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어젯밤 검토 세션에서 질문이 있거나 메모에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지탱해 주시고, 신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원래의 독자와 원래의 문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리를 더 잘 인식하게 되어 오늘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계속되는 계시로서 그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더 잘 이해하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에 비추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은.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에베소서의 구조와 에베소서를 기본적으로 동일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 장은 직설법에 해당합니다. 직설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묘사하는 매우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섹션인 4장부터 6장은 그 명령의 윤리적 결과, 즉 명령이 자연스럽게 따라야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명령 또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결과로 참이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어려움 중 하나는 대부분의 신약학도 학생들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정확한 이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 정확한 위기나 어려움, 또는 어떤 종류의 일탈적인 가르침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실제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회람 편지, 즉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회람되도록 되어 있던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하려는 특정 문제나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외가 캘리포니아의 Talbo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치고 있는 Clinton Arnold라는 신약 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가 특정 문제나 위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마술과 관련된 문제나 문제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1세기에 마술이 종교적 맥락에서 보였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늘날 우리가 취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술을 보았습니다. 비록 1세기에 마술의 일부 측면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Arnold는 마술이라는 측면에서 마술이 이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경험적 세계 뒤에 있는 전체 세계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적 존재에 의해 지배되는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적에게 해를 끼치도록 이러한 영적 존재를 조종하거나 간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주문과 주문, 신성한 이름 등을 발화함으로써 영적 세계를 조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때로는 적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rnold는 마법이 실제로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 특히 소아시아나 현대 터키 지역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바울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에 폭 빠졌거나 아마도 두려움 속에 살았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Arnold가 하고 있는 일은 독자들에게 이러한 영적 힘, 이러한 적대적인 통치자 및 영적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마술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악의 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모든 권력 언어, Arnold가 말한 통치자와 권위 및 권력에 대한 강조를 마법이 통제하고 조작하려고 시도한 이러한 적대적인 권력과 통치자, 세상 뒤에 있는 이러한 권력과 영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독자들이 마술에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복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rnold가 제안한 것처럼 통치자와 권세와 권력보다 훨씬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마술에 대한 이러한 경향, 영적 세계에 대한 집착에 맞서 싸우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매우 일반화되었지만 사실 제가 에베소서에 관해 읽은 많은 책들은 바울이 마법의 문제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Arnold의 접근 방식에 설득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읽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부족하다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에베소서 학생들과 신약학자들이 구체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아닌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에베소서 뒤에 있는 거짓

가르침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나 쟁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위기나 가르침. 사실, 특정한 상황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에베소서의 첫 번째 구절이나 그것이 시작되는 첫 두 구절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바울의 다른 편지들, 전형적인 편지들처럼 시작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라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러분은 독자들을 에베소의 성도들로 식별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신약성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학기 초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약성경 저자들이 쓴 원본 문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울이 쓴 원본 편지인 에베소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인쇄기가 출현하기 전과 지금은 전자적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쉬운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복사한 것처럼 초기 교회의 초기 세기 동안 보존된 편지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초기 세기에 그들은 단순히 베끼기만 했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다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약성서의 문서가 전달되고 전송되는 대로 복사하여 초대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가장 초기의 사본과 더 나은 사본으로 간주되는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 그 작은 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원고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원래 에베소에서 글을 쓰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베소라는 도시의 중요성 때문에, 에베소서가 복사되고 널리 퍼지던 어느 시점에 후대의 서기관이 이 내용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저는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를 일반 서신으로 널리 퍼뜨려 가능한 한 널리 읽혀지도록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그가 단지 소아시아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로마 제국에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이 편지가 도달할 도시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문제나 위기, 거짓 가르침을 다루지 않고 매우 일반적인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은 단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상황,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일반 편지를 썼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믿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일반 권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에베소가 없는 사본과 있었던 사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나는 에베소 지역 주변에서 유래하지 않은 에베소에 없는 부부가 있고, 에베소 지역을 포함하는 일부도 유래하지 않은 부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알아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본과 없는 사본, 그리고 그 사본이 나온 지역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추적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게 다른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바울의 편지는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편지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구에 관해서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종종 흥미롭게도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왜 정확한 이유를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또 다른 편지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에서처럼 특정한 위기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편지에는 로마에 있는지 아니면 로마서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편지들에서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독자들의 신분이 바울이 실제로 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불일치나 의문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한 설명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에베소서와 로마서, 특히 에베소서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 실제로 쓴 이름인지에 대해 나누어진 사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문구가 에베소서에 없었다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이 편지는 에베소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편지는 바울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기독교인, 도시에 쓴 일반 편지입니다. 그 중 에베소도 의심할 바 없이 그러한 도시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에베소서는 지난 3년 동안 바울과 내가 이에 대해 마음을 바꾼 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떤 특별한 위기를 다루지 않은 편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교 로마와 로마 제국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교 로마에서의 생활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우 일반적인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의 구체적인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왜 이 모든 것이 권능과 힘과 권위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권세와 통치자와 권세와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한 예수의 통치권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그것이 주로 마법이 아니라면 풀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그리고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은 에베소서의 기독교론, 즉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내용이 여러 면에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그리하여 인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칭의의 언어나 그런 종류의 언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메시아를 찾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언어를 많이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는 통치자로서, 즉 온 우주의 우주적 통치자로서 더 많이 묘사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마가복음 등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된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온 우주의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울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묘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온 우주와 이러한 권세와 권위, 영적인 존재들의 통치자로 묘사한 것이 마술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어디서 그런 생각을 얻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자, 우주적 화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는 우주적 화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만물이 화해되고,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와 화목된다는 것이 주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에 그 주제는 1장과 9절과 10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이 마지막 수업 시간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듣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계획으로서, 즉 그분의 뜻, 여기에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때가 찬 때를 위한 계획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고 합산하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요약될 것이며,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요약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위치, 그리스도와와의 합당한 관계를 찾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그 계획이 이미 시행되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것은 Paul의 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왕국이 이미 여기에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Paul의 버전입니다. 바울은 장차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실 그 날, 온 우주가 화목하여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바울은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1장 9절과 10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몇 구절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1장과 19절부터 시작하고 다음 부분인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이 무엇인지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언어, 믿는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에 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의 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 너희가 이것을 잘 듣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재하는 자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이니라.

그렇다면 바울이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과 함께 이 우주적 화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아 하늘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통치 위에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울이 생각하는 이 화목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를 온 우주의 주님으로 하늘에 앉히심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가 이



능력의 언어이고 예수가 우주의 주이며 이 모든 권세와 통치자와 통치권과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이 표현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 사람은 그걸 어디서 얻나요? 그건 그렇고, 저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바울이 통치자와 다스림과 권세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이 로마 제국과 같은 물리적 권위와 통치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가 항상 어떤 의미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영적인 힘과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언어를 어디서 얻나요? 바울은 실제로 구약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구절들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귀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생각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 시편은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릴 다윗의 아들 왕을 가리키는 시편인 시편 110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글썄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닌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 위에 뛰어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분의 발등상이 된 원수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에 대한 개념을 어디서 얻었는지 생각합니다. 예수가 우주의 통치자라는 개념은 마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구약성서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묘사하는 시편 110편과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도록 임명하실 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이고 악하고 적대적인 존재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텍스트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0편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해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본문인 시편 8편은 여러분도 아마 이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은 아담과 하와를 인류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내 생각엔 폴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다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의 성취로 예수께서 이제 그의 우주적 통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의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 배후에 있는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러한 영적 권세들을 포함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 말은, 왜 바울이 직접 나서서 예수는 가이사과 로마제국의 주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예수가 우주의 통치자이고 그가 물리치고 지금 그의 발 아래 있는 그의 적들의 통치자라고 말합니까? 발 아래 있다는 것은 정복하고 정복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제 이 원수들은 하늘 영역의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께서 이제 로마와 가이사를 자기 발 아래 두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통치와 로마 권위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예수께서 하늘로 높아지셔서 그의 원수 곧

영적 통치자와 권세와 권세를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예수께서 로마를 통치하시고 가이사라가 지금 그의 발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카이사르는 그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무엇보다 훨씬 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내다보고 왕좌에 앉은 카이사르를 봅니다. 그냥 행동 중이에요. 좋아요.

좋은. 내 생각엔 그게 좋은 것 같아. 다른 아이디어가 있나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바울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여, 화내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를 이기시고 로마제국을 이기셨고, 로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아 그들을 발아래 복종시키셨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풀은 왜...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보다 훨씬 높으셨다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가 에베소서에서 통치자와 권세와 권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는 그가 우주를 다스리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 이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유혹한 이후로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는 그 나라의 왕이자 통치자입니다.

신약성서의 여러 곳에서 그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그의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에베소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또는 바울은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을 물리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왜 예수께서 로마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내가 로마, 로마 제국에 살고 있고 로마가 통치하는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로마 제국에 충성해야 할지 아니면 예수에게 충성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럴까요? 폴이 이렇게 말할까? 구세주 예수께서는 모두가 그가 로마를 전복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로마에 살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응.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왕이요 메시아임을 선포하지 않으셨던 마가복음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여 그가 로마를 멸망시키고 카이사르를 몰아내기 위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가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복음서에서 그가 물리치기 위해 오신 원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쫓는다... 즉, 그는 지구상의 물리적 힘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힘을 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그는 독자들이 자신이 로마를 무너뜨리러 왔다고, 메시아로서 로마를 패배시켰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말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로마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적대적인 영적 통치자입니다. 사실, 그 아이디어는... 음, 마법, 즉 영적인 힘에 대한 클린턴 아놀드의 제안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그것이 하고 있던 일이 로마 세계가 이미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악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서 로마 제국이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악마적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을 내다보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가이사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예수님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리친 적은 물리적인 힘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입니다. 즉, 예, 로마는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카이사르는 왕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들의 날은 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정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물리적 세계이며, 물리적 세계 뒤에는 어떻게든 진행되는 일을 결정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계에서 승리하셨고, 시편 8편과 110편의 성취를 통해 이미 그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제국에서 살려고 하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주장을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곧 육의 세계에서 승리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적 화해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1-21절.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영계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즉 영계뿐만 아니라 육계도 화해되기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 1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썄요,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하늘이 화해하기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어떻습니까? 2장 11-2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본 주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다소 긴 부분을 설명합니다. 화해했고, 바울은 한 새 인격 안에서, 한 새 인류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서로 화해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는 단지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이전에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심으로써 지상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표시로 그들을 화해시키고 지상 영역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리라 약속하신 이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위로 승천하심으로써, 또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심으로써, 인류를 한 몸으로 화해시키심으로써, 이 우주적 화해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aul의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버전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 정점이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국은 아직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발전하고 있었고 예수의 사역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와 화목시키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세들, 곧 우주적 영적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이 한 몸, 그 과정에서 인류를 화해시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만물을 화해시키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흥미로운 구절인 3장과 10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된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감추어진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 달라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재미있는 일이니라 바울이 말한 교회로 말미암았으니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화목하여 교회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 말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러 화해시켜 한 몸으로 만드셨고,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신 것을 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통치자, 권세, 권세를 언급할 때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서 읽은 것처럼 그는 세상 뒤에 있는 영적 악한 존재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한 교회는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 말은, 그게 왜 흥미로울까요? 화해된 인류인 교회가 왜 이 화해 과정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하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들,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영적인 악한 존재들에게 왜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훨씬 위에 앉아 계시나요? 왜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하나의 교회에 두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보라는 말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 사악한 세력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들이 이 새로운 인류, 화해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를 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 이 한 몸으로 볼 때, 그것은 영계에 있는 이 사악하고 적대적이며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 무엇을 하는가? 좋아요. 그것은 그들의 시간이 다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게는 그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이러한 우주적 화해의 과정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화해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패배는 이미 끝났고 그들의 시간은 끝났다는 표시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우주적 화해라는 주제에 관해 에베소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첫째, 에베소서에서 이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지만 바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우주 전체, 우주의 물질적이고 하늘적인 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가 죄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온 우주는 이제 이러한 사악하고 적대적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권세들, 이러한 적대적인 권세들의 통치가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침공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정은 온 세상이 죄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이 죄로 인해 물리적, 비물질적 우주 전체가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마는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전체 우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번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 온 우주가 죄와 악의 세력의 속박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1장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이 과정을 이미 시작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위에 뛰어나셨느니라. 그분은 이미 온 우주, 온 우주를 당신과 화해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교회, 이 새로운 인류, 이 새로운 실체, 함께 화목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몸을 교회는 이 화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첫 번째 기관이자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써 하늘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연합시키고 악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한 몸인 교회로 연합시킴으로써 그 과정도 시작하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직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남자와 여자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장차 왕국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왕국의 통치와 권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만물을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는 이 과정이 미래의 어느 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로마 제국과 그들의 상황을 이러한 맥락에 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로마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으며 이 적대적인 로마 환경과 로마 세계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있는지 봅니다.

화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제국에서 지상에서 직면하게 될 물리적 권위나 권력 뒤에 있는 세력을 이미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바울이 이 모든 권력 언어에 대한 개념과 예수께서 이러한 영적 통치자와 권위를 물리치신다는 개념을 얻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마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구약성서와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바울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세계 뒤에는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미 영적 세계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의 대리자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화해시켜 세상에 화해를 이루시면서 이미 시작된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나는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 장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자동으로 건너뛰게 될 본문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장 2장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이것은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니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시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관해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이른바 영적 전쟁 구절은 어떻습니까? 6장의 끝 부분에서 바울은 이제 전투나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특정 부품이나 갑옷 조각.

그래서 그는 1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 강력한 언어가 나옵니다.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개념은 물리적 세계 뒤에는 이러한 악한 세력이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1위로 돌아갑니다. 죄로 인해 이제 온 우주는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그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하여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갑옷, 즉 허리에 두르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위한 신발처럼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이 모든 것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제 질문 중 하나, 실제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갑옷 언어와 전쟁 언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일을 꽤 많이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이고, 다른 은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때때로 그것을 운동 경기에 비유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농업과 건축에 비유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술하고 묘사하기 위해 전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류의 상황, 영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묘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다양한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묘사합니다. 의와 평화와 구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 책에서 6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부록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6장에 가서 결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말했지만,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 실제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6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선, 바울은 갑옷 이미지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적어도 나는 자라면서 항상 이것을 배웠고, 내 마음 속에는 바울이 감옥 어딘가에 있다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 서신 중 하나이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 군인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글을 쓸 때 그는 위를 쳐다보며 투구를 보고 구원의 투구를 썼고, 위를 바라보면서 그의 흉배, 곧 의의 흉배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그의 옆에 서 있거나 그가 관찰했던 로마 군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가 갑옷 이미지를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로마 군인의 복장과 전투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Paul이 이해하는 곳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바울이 구약성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흥미롭게 묘사하는데, 이것이 중요해지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께서 의의 흥배를 입으시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옷에 대한 복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평화를 선포하는 사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방금 바울이 평안의 복음으로 너희 발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구약성경을 활용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하신 동일한 갑옷이 이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취하라고 요구하는 동일한 갑옷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 59장에서 시험되었으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는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그다지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바로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에서 이 악한 영들과 권세들을 정복할 수단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세계.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긴장감을 주목하세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1장에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영하심으로써 이미 이러한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주적 화해를 이루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그러나 아직-아직은 아니며, 암시적이고 명령적인 것입니다. 직설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화해, 이 권세들의 패배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장이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장이 아닙니다. 바울이 6장과 9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다음, 아, 영적 전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이것이 바울이 처음 다섯 장에서 이미 말한 모든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믿음과 화평과 의와 진리와 복음이라는 모든 갑옷은 이미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 여러 번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6장은 책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렌즈, 즉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주 전쟁의 렌즈를 통해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1장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써 이 보편적인 화해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 적의 세력인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일과 같은 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생각하며, 때로는 귀신 들림이나 영향력과 같은 일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것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다면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6장을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연결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바울의 경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주요 방법은 특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화와 분열 대신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불순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대신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물리치신 어둠의 세력에 타격과 패배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갑옷이 바울이 에베소서 초기에 실제로 언급한 것들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바울이 에베소서 처음 다섯 장에서 분명히 표현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 영역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즉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벌이는 이 우주적 전쟁에 동참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완전히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질문이요. 좋습니다.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관해 질문 있으신가요? 시험의 길이와 유형에 있어서는 이전 시험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재로 되어 있어요. 복음서나 역사적 자료에는 없습니다. 학기 초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까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학습 가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lackboard에 있지만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 학습 가이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월요일 이전에 문의해주세요.

이것은 신약 역사와 문학 과정에서 Dr. Dave Mathewson이 강의한 에베소서 21장이었습니다.